

소상공 61%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부정적”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1.4%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8.6%는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단계 격상을 반대하는 이유로 ▲매출 감소 ▲경기침체 우려 ▲기 방역조치 효과 확인 후 추가 조치 여부 검토

반대 이유로 매출 감소·경기침체 우려 등 꼽아

찬성 이유로 코로나19 조기 종식·경제적 손실 예방

등을 언급했으며, 단계 격상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코로나19 조기 종식 ▲급격한 재확산 속도 우려 ▲더 큰 경제적 손실 예방 등이 있었다.

한편, 3단계 격상시 예상되는 피해로 월 평균 매출액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81.4%)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3단계 격상 시 적정기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1주일~2주일

(44.0%) ▲1주일 이내(28.2%) ▲2주일~3주일(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응답자의 71.0%가 '추가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77.6%)는 의견이 많았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찬성하는 이유로 ▲매출 증대 ▲경기활성화 ▲소비 진작 효과 등의 답변이 있었으며, 추가지급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 폭탄 우려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 ▲임시방편일 뿐 근본대책이 아님 등의 의견이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올해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7월)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56.2%)했다고 응답했고,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자금지원(79.0%) ▲세제지원(51.0%) ▲판로지원(7.6%) 등

의 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와 함께 전 국민의 자발적 협조로 최대한 빠르게 반전(反轉)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감면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등 지원 대책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 WIPO 글로벌 혁신지수 첫 10위권 진입

특허청은 유엔(UN)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일 발표 한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GII)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WIPO가 발표한 혁신지수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스웨덴, 미국, 영국,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8위, 우리나라가 10위, 중국과 일본이 각 14위, 16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혁신지수는 WIPO, 유럽경영대학원(INSEAD) 등이 세계 WIPO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인 혁신역량을 측정해 각 국에 공공정책 또는 경영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올해는 인적자원 및 연구 등 7개 분야, 8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13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지수 10위에 오른 것은 지속적인 혁신노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신규고객에게 ‘이벤트 경품’

전북은행, 당첨자 415명 발표... 1등 당첨자에 건조기 증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일 '신규고객 & Youth고객 이벤트' 당첨자 415명을 발표하고 신규고객 이벤트 1등 당첨자에 경품 증정식을 가졌다.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이번 이벤트는 입출금 통장 신규 후 응모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15명을 선정했다. 이중 15명에게 추첨 순위에 따라 1등 건조기(1명), 2등 무선청소기(4명), 3등 기프트상품권 20만원(10명)을 나머지 4~5등 400명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최소금액 1만 원 이상)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했다. /김윤상 기자

또한, 전북은행은 만18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 Youth고객 중 3월까지 입출금 통장 신규를 한 고객 9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최소금액 5천 원 이상)을 증정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도민들의 사랑에 보답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감사하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b.com) 및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일 '신규고객 & Youth고객 이벤트' 당첨자 415명을 발표하고 신규고객 이벤트 1등 당첨자에 경품 증정식을 가졌다.

찾아 유효성분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미용에도, 체중 조절에도 '딱'

농진청, '물에 잘 녹고 지방세포 분해 효과 4배 증가'

마스크 팩 · 체중 조절용 음료 등으로 효능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전남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차나무 잎(차잎)에 풍부한 유효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BEGG)'를 미용 제품과 체중 조절용 식품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성분은 차나무 잎에 들어있는 총 4종류의 카테킨 중 60%를 차지한다. 항산화 기능은 비타민C보다 10~20배 우수하고, 지방분해를 유도해 체중 조절(다이어트) 효과를 낸다. 또한, 피부 주름 개선, 피부 보호 효과도 크다. 하지만,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쓴맛이 강하며 쉽게 갈색으로 변하는 점 때문에 산업화 소재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연구진은 포집·고압 유효성분을 통해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성분을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실험 결과,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은

원래의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보다 6.3배 물에 잘 녹고 안정성이 유의적으로 향상됐다.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6분의 1로 줄고, 쓴맛은 50% 감소했다. 아울러 단순히 물에 녹인 것보다 항산화 기능은 2.3배, 지방세포 생성 억제 효과는 2.2배, 지방세포 분해 효과는 4배 증가해 효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체중 조절용 음료와 주름 개선용 마스크 팩을 시제품으로 제작해 효능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했으며, 산업체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서형호 온난화 대응농업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차잎의 유효성분을 활용한 음료와 미용 관련 제품, 건강 관련 제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차(茶)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술 보급을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실험 결과,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은 /김윤상 기자

안전한 직장 구현 · 피해예방 전문인력 교류

전기안전공사, 안전관련 공공기관과 첫 감사업무 다중협약... 온택트 형태로 진행

국민안전 관련 공공기관들이 감사 역량 강화와 코로나19 상황대응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상임감사 함중걸)를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9개 안전관련 공공기관은 지난 1일 '한국안전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감사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온택트(On-tact)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공공기관 감사들은 ▲안전한 직장 구현과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감사정보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감사역량 강화 ▲청렴·안전 캠페인 공동추진 ▲코로나19 상황대응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함중걸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국



안전공공기관 감사업무 협약에 온택트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함중걸 상임감사

실현을 도모하는 안전 공공기관들이 처음 뜻을 같이 했다는데 의미가 깊다"며 "안전 공공기관들이 안전과 청렴문화 확산을 이끌어 내자"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20년 기획재정부 주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슬기로운 직장생활' 직무역량 강화

전북경진원, 뉴웨이브 참여 청년근로자 대상 교육 온라인 진행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참여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지난 달 24일부터 1일 5시간씩 5일 간 진행되었다.

'디지털 노마드 인재전략', '퍼스널 브랜드 전략', '기획력(글쓰기) 높이기' 등의 교육생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교육을 구성했다.

교육을 수강한 한 근로자는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감염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며, "화상교육을 처음 접해왔

는데 예상외로 사용법도 간단하고, 강사와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마치 현장에서 듣는 것 같아 신기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근로자는 "변화된 시대에 근로자가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실용성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한다"고 말했다.

경진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장기화의 조짐을 보임에 따라 디지털 뉴노멀 시대가 더욱 빨리 앞당겨졌다"며 "앞으로도 기존 대면 집합 교육을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는 비대면 교육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전문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크 교류회', '스마트 컨퍼런스'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트윈데믹 우려 속 독감예방접종 '중요'

건협 "65세 이상 고령자·임신부·만성질환자 예방접종 해야"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고 가을이 목전에 다가오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에 독감 유행까지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 유사해서 자칫 혼동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독감으로 또는 독감을 코로나19로 오해할 경우 치료에 혼선이 올 수 있고, 의뢰기관에 유증상자가 급증하는 등 더 큰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김에스더 진료과장은 "코로나19는 아직 예방백신이 없지만 독감은 백신접종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edemic)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독감백신을 미리 접종하는 것이 좋고 특히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필수적으로 접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함께 금연, 금주, 균형잡힌 영양소 섭취, 적절한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면역력강화에 노력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이 발견되면 적극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감백신은 통상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를 보며, 6개월 간 면역이 유지된다. 따라서 9월~10월중 예방접종하는 것이 좋다.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만 62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으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독감백신을 맞을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독감접종을 실시한다(국가예방접종은 9월 8일부터 대상별 순차 실시).

내원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등)를 착용하고 접종에 임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개발청장 도로건설 현장 점검

양충도 새만금개발청장은 2일 새만금 남북도로 3공구 도로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예방과 공사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양 청장은 근로자들의 개인위생관리, 사업장 청결유지 등 소독, 외국인 근로자 및 위험지역 방문자 관리,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만경강을 횡단하는 만경대교 공사현장의 폭염 및 안전대책을 당부하고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재정집행에도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양 청장은 현재 복상 중인 제9호 태풍 '미이삭'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